

언론 관련 학술지 논문 작성 지침(2014)

2014년 7월 제정

이 원고 작성 규정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그리고 언론정보학회의 협의에 의해서 마련된 통일된 규정이다. 이 규정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그리고 지역언론학연합회가 2002년 공동으로 마련한 규정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규정은 또한 미국심리학회의 〈출판 지침〉(*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ed.)과 한국심리학회에서 출판한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본 규정집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두 책의 규정을 따른다.

1. 논문의 구성 요소와 내용

논문은 제목, 저자명과 소속, 국문 초록, 본문, 참고 문헌, 부록, 영문 초록 순으로 구성한다. 편집 용지는 A4, 위아래 여백은 35mm, 좌우 여백은 각각 30mm, 글자체는 신명조, 글자 크기는 10, 장평은 95, 자간은 -10, 그리고 줄 간격 160%를 권장한다.

1) 제목, 저자명과 소속, 초록

- (1) 논문 제목과 부제목은 진한 글씨로 가운데 정렬한다.
- (2) 저자명은 논문 제목 아래에 쓰고 가운데 정렬한다. 저자 소속은 기관명, 부서명, 직위 순으로 저자명 한 줄 아래, 소괄호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줄을 바꾸어 기재한다.
- (4) 초록은 논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문단 구분 없이 150 단어(600자) 정도로 작성한다. 들어 쓰기를 하지 않으며 양쪽 정렬한다.
- (5) 초록 한 줄 아래 '핵심어(영어 논문의 경우, Keywords)'는 독자가 논문을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용어 3~5개를 선정하여 나열한다.
- (6) 사사(Acknowledgement), 연구기금 출처, 학위 논문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명시, 저자(들)의 이메일 주소, 교신 저자 등 명시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요소에 별표(*)를 사용해 각주 형태로 기술한다(아래의 예 참조).

소셜미디어 이용정도 및 이용동기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개방형/폐쇄형 소셜미디어 비교*

○ 제목과 부제:
진하게, 가운데 정렬

○ 저자명
가운데 정렬

○ 소속
• 가운데 정렬
• 소괄호 안에 표기

○ 국문 초록
• 150단어(600자)이내
• 양쪽 정렬
• 들여쓰기 없음

○ 핵심어
• 양쪽 정렬
• 3~5단어

○ 각주
• 사사, 이메일 주소, 교신 저자 표기
• 해당 요소에 별표(*)로 표시

○ 쪽 번호
• '표지부터 시작하고 표지 하단 중앙에 기입한다.

홍길동**
(한국언론연구소 연구위원)

김나래***
(한국대학교 언론학과 교수)

본 연구는 한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통하여 소셜미디어 이용정도 및 이용동기가 교량적/결속적 사회자본 및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고찰했다. 소셜미디어를 네트워크 성격에 따라 개방형 네트워크와 폐쇄형 네트워크 서비스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전자는 교량적 사회자본의 강화에, 후자는 결속적 사회자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이용동기는 교량적/결속적 사회자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사회적 참여에는 소셜미디어 유형별 이용정도 및 이용동기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소셜미디어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 성격의 매체를 이용하고, 그것을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핵심어: 소셜미디어, 참여, 교량적 사회자본, 결속적 사회자본, 이용동기

* 본 연구는 한국언론연구소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honggidong@hankukresearch.org
 *** keumnarae@hankuk.ac.kr, 교신 저자

- 1 -

2) 본문

(1) 본문의 소제목들은 수준별(상위, 중간, 하위 수준)로 구분하고 '1. → 1) → (1)' 식 표기를 사용한다(아래 예 참조). 소제목들은 진하게 쓰며,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줄 바꿈을 한다. 필요에 따라 제4수준 또는 제5수준 소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 1) 조사 참여자와 조사 절차
- 2) 독립 변인의 측정
- 3) 종속 변인의 측정
 - (1) 행동 변인의 측정
- 4. 연구 결과

(2) 새 문단의 시작은 한 글자(두 칸) 들여쓰기를 한다. 단, 블록 인용, 소제목, 표와 그림의 제목 그리고 각주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

- (3) 본문에 한자나 외국어가 등장할 경우, 먼저 우리말식 음독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한다. 이미 한번 사용한 외국어는 이후 한글로만 표기한다.
- (4) 각주는 본문 내용에 대한 부연이 필요할 때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는 각주로 하지 않는다.

3) 참고 문헌, 부록, 영문초록

- (1) 참고 문헌은 본문의 끝에서 두 줄을 뺀 후, 가운데 정렬로 진하게 참고 문헌이라고 제목을 붙인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참고 문헌 목록의 작성”을 참조한다.
- (2) 분량이나 내용 전개 등의 문제로 본문 내에서 포함하기는 어려우나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은 부록에 제시한다(예, 내용 분석의 틀, 실험 연구에 사용된 자극 재료, 설문 문항, 연구용 프로그램 등). 왼쪽 정렬로 진하게 부록이라고 제목을 붙인다. 부록이 여러 개일 경우 로마 숫자로 번호를 부여하며(예, 부록 I-1, 부록 I-2, 부록 II-1, 부록 II-2), 각 부록은 별지에 새로 시작한다.
- (3) 영문 초록은 참고 문헌(부록이 없을 경우) 또는 부록 뒤 별지에 작성한다. 영문 초록은 국문 초록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되, 제목의 왼쪽 위에 진하게 ‘Abstract’라고 표기한다(왼쪽 정렬). 저자의 소속은 직위와 기관명만(예, Associate Professor, Hankook University) 표기한다.

2. 문헌 인용 표기법

1) 일반적 인용 규정

- (1) 저자명이 본문 중에 나올 시, 국내 저자의 연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을 쓰고 출판 연도를 괄호로 묶어서 쓴다([예 1]). 외국 저자명은 우리말식 음독을 쓰고 괄호 안에 원어로 이름을 표기한 후 출판 연도를 적는다. 동양 저자명은 모두 쓰지만([예 2]), 서양 저자명은 성(姓)만 표기한다([예 3]). 외국 저자명을 본문 중에 재차 인용할 경우, 우리말식 음독만 쓰고 원어 이름은 표기하지 않는다([예 2]와 [예 3]). 번역서를 인용할 때에는 원전이 발간된 연도와 번역판 연도를 같이 표기한다([예 4]). 동일 저자의 동일 논문을 다른 문단에서 다시 인용할 때는 출판 연도를 쓰지만, 같은 문단 안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출판 연도를 쓰지 않는다.

[예 1] 홍길동(1996)은 ... 주장했다. 홍길동은 또한 ... 주장했다.

[예 2] 마오쩌둥(毛澤東, 1977)은 ... 주장했다. 마오쩌둥은 또한 ... 주장했다.

[예 3] 윌리엄스(Williams, 1990)는 ... 주장했다. 윌리엄스는 또한 ... 주장했다.

[예 4] 밀턴(Milton, 1875/1998)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다.

- (2) 저자명이 본문 중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인용할 내용의 문장 뒤에 저자명(서양저자는 姓만)과 출판 연도를 쓴다([예 1]).

[예 1] ...를 제시하였다(홍길동, 1986). ...을 주장하였다(Williams, 1990).

- (3) 재인용 시, 원전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제시하고 쌍점(:) 뒤에 재인용한 자료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제시한다([예 1], [예 2]).

[예 1] 홍길동(2000: 장길산, 2005 재인용)은 ...

[예 2] ...를 주장하였다(Williams, 1979: 홍길동, 1991 재인용).

- (4) 약 40 단어 이하의 글을 직접 인용할 경우, 직접 인용하는 단어, 어구, 문장을 따옴표로 표시하고, 괄호 안에 저자명, 출판 연도 그리고 쪽수를 쓴다([예 1]과 [예 2]). 번역서를 인용할 때, 인용 쪽수는 번역본을 기준으로 한다([예 2]). 국내 문헌을 직접 인용할 경우, "(25쪽)"식으로 표기한다. 외국 문헌 직접 인용의 경우는 "(p. 25)"또는 "(pp. 25-26)"식으로 표시한다.

[예 1] 홍길동(1996)은 "정치는 문화"(25쪽)라고 주장했다

[예 2] 윌리엄스(Williams, 1990/2014)는 "문화는 정치"(7쪽)라고 주장했다.

- (5) 다른 저자가 쓴 약 40 단어 이상의 글을 직접 인용할 경우, 별도의 블록을 만들어서 따옴표 없이 제시하고 블록 전체를 들여쓰기 한다. 최종 마침표 뒤에 괄호를 열고 저자명, 년도 그리고 쪽수를 표기한다.

2) 여러 저자의 단일 연구 인용

- (1) 저자 두 명이 함께 수행한 연구를 본문 중에 인용할 경우, 두 저자명을 '와(과)'로 연결하여 그 연구를 인용할 때마다 두 저자명을 모두 기재한다([예 1] 과 [예 2]). 문장 끝에 괄호를 사용하여 인용할 경우, 한국과 동양 저자명들은 가운데점(·)을 사용하여 구분하거나([예 3]), 가운데점을 대신하여 쉼표를 사용하여 구분한다([예 4]). 이 경우, 출판 과정에서 쉼표를 가운데점으로 대체한다. 서양 저자명은 '&'를 사용하여 구분한다([예 5]).

[예 1] 홍길동과 장길산(2010)은 ...

[예 2] 윌리엄스와 워싱턴(Williams & Washington, 1990)은 ...

[예 3] …을 발견했다(홍길동 · 장길산, 2010).

[예 4] …을 발견했다(홍길동, 장길산, 2010).

[예 5] …이 발견했다(Williams & Washington, 1990).

- (2) 셋 이상 여섯 명 미만의 저자가 함께 수행한 연구를 본문에 인용할 경우, 처음 인용할 때만 모든 저자명을 표기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과 ‘등’(또는 ‘외’)을 사용하여 표시한다([예 1], [예 2], [예 3]). 외국 문헌의 경우, 두 번째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과 ‘et al.’을 사용하여 표시한다([예 4]). 여섯 명 이상 공동 저자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 처음 인용부터 첫 번째 저자명 다음에 ‘등’이나 ‘외’ 또는 ‘et al.’을 기입한다.

[예 1] 홍길동, 장길산, 그리고 임격정(2010)은 … 주장했다. 홍길동 등은 또한 …

[예 2] … 발견했다(홍길동 · 장길산 · 임격정, 2010). … 발견했다(홍길동 등, 2010).

[예 3] 윌리엄스, 워싱턴, 그리고 스미스(Williams, Washington, & Smith, 1990)는 … 주장했다. 윌리엄스 등은 또한 … 주장했다.

[예 4] …을 발견했다(Williams, Washington, & Smith, 1990). 또한 …도 발견되었다(Williams et al., 1990).

- 3) 두 편 이상 연구를 인용했을 경우 표기 순서

- (1) 한 괄호 안에 두 개 이상의 연구를 인용 표기할 때에는 먼저 국내 문헌, 동양 문헌(국가명의 가나다 순), 서양 문헌 순으로 배열하고, 저자명의 가나다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연구와 연구 사이에는 쌍반점(:)을 기입한다.

[예 1] 여러 연구들(장길산, 1994; 홍길동, 2000; 柄谷行人, 2009; 毛澤東, 1977; Washington, 1990; Williams, 1990)에서 …

- (2) 동일 저자의 연구를 두 편 이상 인용할 경우, 출판 연도순으로 오래된 것부터 배열한다([예 1]). 이때 저자명은 한 번만 기입하고 출판 연도만 쓴다. 출판 연도까지 동일할 경우, 제목의 가나다 순서로(영문의 경우는 알파벳 순서) 출판 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다르게 제시한다([예 2]).

[예 1] 선행 연구들(홍길동 · 장길산, 1992, 2011, 발간중)에서 …

[예 2] 최근 연구(홍길동, 2010a, 2010b)에서는 …

3. 참고 문헌 목록의 작성

1) 일반적 규정

- (1) 참고 문헌은 본문 다음에 ‘참고 문헌’이라는 제목(가운데 정렬, 진하게) 아래 나열하되,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제시한다.
- (2) 참고 문헌을 나열할 때 각 문헌의 첫째 줄(行) 세 칸 내어쓰기를 하여 참고 문헌 간 구별을 쉽게 한다.
- (3) 국내 문헌, 동양 문헌(일본어, 중국어), 서양 문헌 순으로 배열하되, 번역서(예컨대 한글로 번역된 영문서)는 해당 원어 문헌으로 분류한다.
- (4) 한글어로 된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중국어나 일본어 저자명은 한자의 한글식 표기의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 (5) 제1저자의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가 참고 문헌 목록에 포함될 경우, 단독 연구를 공동 연구보다 앞에 배열한다.
- (6) 같은 저자의 문헌은 출판 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하되, 같은 연도의 것이 두 편 이상일 때에는 연도 다음에 ‘a, b, c’ 등을 넣어 구별한다.
- (7) 저자가 없는 문헌은 문헌 제목을 저자 위치에 두고 그다음에 발간 연도를 기재한다. 단, 본문에서 ‘Anonymous’라고 인용한 것은 이를 저자명으로 간주한다.
- (8) 국내 문헌의 저자명은 완전한 성명을 표기하고, 동양 문헌은 완전한 성명을 원어 그대로 표기한다. 서양 문헌은 저자의 성(last name)을 적고, 이름(first name)과 가운데 이름(middle name)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생략 표시로 마침표를 찍는다.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한국과 동양 저자명들은 가운데뎛점(·)을 사용하여 구분하거나(예, 홍길동·장길산·임격정) 생략표 사용하며 구분한다(예, 홍길동,장길산,임격정). 생략표를 사용한 경우는 출판과정에서 가운데뎛점으로 대체한다. 서양 문헌의 경우는 맨 마지막 저자 이름 앞에 ‘&’를 사용하여 이름들을 구분한다(예, Smith, A. B., Johnson, C. D., Williams, E. F., & Brown, G. H.).
- (9) 출판 연도는 저작권 표시(©)에 표기된 연도를 가리킨다. 출판 연도는 저자명 뒤의 괄호 안에 표기하되, 출판 예정일 경우에는 출판 연도 자리에 ‘발간중’(서양 문헌은 ‘in press’)이라고 표기한다. 출판 연도가 불분명한 문헌은 (*n. d.*)라고 쓴다.

2) 일반적 문헌의 종류별 표기

- (1) 학술 논문. 학술논문은 연구자명, 출판 연도, 논문 제목, 정기 간행물명, 권수(volume number), 호수(issue number), 쪽 순으로 표기한다. 논문 제목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

지 않는다. 서양 학술지 논문의 경우, 주제목과 부제목의 첫 번째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Title of the article: Subtitle of the article). 국내 정기 간행물명은 화살괄호(<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예, <한국언론학보>). 서양 정기 간행물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되 주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Journal of Communication*). 국내 학술지 논문의 경우, 권수와 호수를 ‘몇권 몇호’라고 표기하고 쪽수를 기입한다. 쪽수는 붙임표(-)를 사용한다(예 1). 서양 학술지 논문의 경우, 학술지명 뒤에 권수를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호수는 괄호 안에 표기하되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는다(예 2). 만일 해당 학술지가 연속번호 체계(즉, 이전 호의 쪽수가 다음 호로 이어짐)를 사용할 경우에는 호수(issue number)를 적지 않는다(대부분의 서양 학술지는 연속번호 체계를 사용).

[예 1] 홍길동 (2014). 한국 언론의 새로운 지평 연구. <한국언론연구>, 35권 1호, 23-54.

[예 2] Knapp, M., Ellis, D., & Williams, B. (1980).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behavior associated with relationship terms. *Communication Monographs*, 47, 262-278.

- (2) 저서 또는 보고서. 저서 또는 보고서는 저자명, 편집서 여부, 출판 연도, 저작물 제목,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표기한다. 국내 편집서일 경우 저자명 뒤에 ‘(편)’, 서양 편집서일 경우 ‘편,’ 또는 ‘(Eds.)’를 표기한다(예 2, [예 3]). 국내 저작물 제목은 화살괄호(< >)를 사용한다. 서양 저작물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주제목과 부제목의 첫 번째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Title of the book: Subtitle of the book*). 판회수(edition)는 제목 뒤에 (제2판)’식으로 표기하고, 영문일 경우에는 ‘(2nd ed.)’식으로 표기한다. 출판사가 위치한 도시와 나라이름 (미국의 경우, 주) 그리고 출판사 명을 표기한다. 쌍점(:)으로 출판사명을 구분한다. 보고서는 보고서 일련번호를 보고서 제목 뒤 괄호 안에 기재한다([예 4], [예 5]).

[예 1] 홍길동 (1990). <한국 언론>. 서울: 책나라.

[예 2] 장길산 (편) (2014). <외국 언론>. 부산: 책동네.

[예 3] Burgoon, J. K., Bowers, J. W., & Woodall, W. G. (Ed.), (1986). *Nonverbal communication: The unspoken dialogue*. New York, NY: Harper & Row.

[예 4] 홍길동 (1999). <한국의 언론인> (조사 분석 99-030). 서울: 한국언론재단.

[예 5]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82). *Television and behavior: Ten year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mplications for the eighties* (DHHS Publication No.

ADM 82-1195).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3) 편집서나 저서에 포함된 단일 논문. 단행본으로 발간된 서적에 포함된 문헌을 인용했을 경우, 인용한 장(章)의 저자명, 출판 연도, 장의 제목, 편집자명, (편), 편집서명, 해당 쪽수, 출판지, 출판사명 순으로 표기한다. 장의 제목은 학술지명 표기에 따르고 편집서명은 저서 표기에 따른다. 서양 문헌의 경우, 편집자명 앞에 'In'을 쓰고 이름(first name)과 가운데 이름(middle name)의 첫 글자를 쓰고 성(last name)을 기재한다(예 2). 마지막 편집자의 성 뒤에 바로 'Ed.' 또는 'Eds.'를 쓴다.

[예 1] 홍길동 (1990). 한국 언론의 현재와 전망. 장길산·임errick정 (편), <한국 언론학의 조망> (45-66쪽). 서울: 새나라.

[예 2] Berger, C. R. (1987). Communicating under uncertainty. In M. E. Roloff & G. R. Miller (Eds.), *Interpersonal processes: New directions in communication research* (pp. 39-62). Newbury Park, CA: Sage.

- (4) 번역서와 편역서. 번역서 또는 편역서는 원저자, 원저의 출판 연도, 원저의 제목과 출판본, 역자, (역), 번역서의 출판 연도, 번역서의 제목,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표기한다. 역자명 뒤에 '(역)' 또는 '(편역)'을 표기하여 역서임을 표시한다(예 1). 서양 문헌의 경우, [예 2]의 표기 방식을 따른다.

[예 1] Seidman, S. (1998). *Contested knowledge: Social theory in the postmodern era* (2nd ed.). 박창호 (역) (1999). <지식 논쟁: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회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예 2] Laplace, P. S. (1951). *A philosophical essay of probabilities* (F. W. Truscott & F. L. Emory, Trans.). New York, NY: Dover. (Original work published 1814).

- (5) 학술대회 발표 논문.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발표자명, 발표 연도 및 월, 발표 논문 제목, 학술발표회명, 발표 도시 순으로 표기한다 ([예 1]). 발표논문 제목은 저서 또는 보고서 제목 표기 방식을 따른다. 발표 장소는 발표 도시와 함께 구체적 발표 장소도 표기할 수 있다. 서양 또는 국제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예 2]의 형식을 따른다.

[예 1] 홍길동 (2014, 5월). <한국 방송 정책 연구의 동향>. 한국방송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언론정책 분과. 서울: 한국대학교.

[예 2] Presenter, A. A. (Year, Month). *Title of paper or poster*.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Organization Name, Location.

- (6) 학위 논문. 국내 대학의 학위 논문은 저자명, 학위 수여 연도, 학위 논문 제목, 학위 수여 대학, 학위명 순으로 적는다. 서양 대학의 경우, 먼저 학위명을 표기한 후 심표를 하고 학위 수여 대학 그리고 국가명(미국은 주명)을 표기한다. 학위 논문 제목은 저서 제목 표기 방식을 따른다.

[예 1] 홍길동 (1994). <한국 방송 정책 연구의 동향>.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예 2] Ryerson, J. F. (1983). *Effective management training: Two mode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larke College of Technology, Potsdam, NY.

- (7) 신문 잡지 뉴스레터 기사. 신문, 잡지, 뉴스레터 등은 출판 일자가 분명할 경우, 저자명 뒤의 괄호 안에 출판 년, 월, 일을 표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출판 연도와 월만 표기하거나 또는 출판 연도와 계절을 표기한다. 신문 기사의 경우, 기사 게재 면을 표기한다([예 1]과 [예 2]). 기사가 여러 면에 걸쳐 나뉘어 실린 경우는 기사가 실린 해당 면 모두를 기입한다([예 3]). 신문 사설이나 일반 기자가 쓴 신문 기사는 신문명을 저자명으로 하고([예 1]), 신문에서 인용한 내용이 독자나 특정인의 기고라면 기고자의 이름을 표기한다([예 2], [예 3]). 익명의 기고일 경우, 기사의 제목 두 세 단어로 기사 작성자를 대신한다([예 4]).

[예 1] 한국신문 (1997, 7, 29). 심장 발작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는 신약 개발. 4면.

[예 2] 홍길동 (2001, 3, 12). 대통령의 말. <한국신문>, 6면.

[예 3] Schwarz, J. (1993, 9, 30). Obesity affects economic and social status. *The Washington Post*, pp. A1, A4.

[예 4] 한국 언론의 미래 (2014, 3, 15). <한국신문>, 9면.

3) 온라인 자료 표기

- (1) 정기 간행물. 연구 제목 뒤에 출처 형태를 대괄호([])로 묶는다. 출처 형태는 다음에 제시한 표기 방식 중 하나를 따른다: [전자매체본], [On-Line], [Electronic version]. 그 뒤에 바로 출처명, 권수, 호수를 기입한 뒤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URL)를 적는다. 국내 온라인 자료일 경우 “URL: 실제 URL” 형식으로 표기한다([예 1]). 외국 문헌일 경우는 URL 앞에 “Retrieved from”이라고 적는다([예

2).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정기 간행물 문서일 경우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표기하고 게시 주소는 기재하지 않는다. 인쇄본 없이 온라인상에서만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의 경우처럼 권 및 호수 기입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간행물명과 URL만을 제시한다.

[예 1] 추병완 (2012). 인터넷 중독과 자기 배려: 덕 윤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전자매체본].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3권 4호, 44-61. URL:
<http://www.kisa.or.kr/public/library/journal.jsp>

[예 2] Duh, E. (2014). Exploring the impracticability of press freedom during a political transition [On-Line]. *Online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Media Technologies*, 4, 1-26. Retrieved from <http://www.ojcm.net/articles/41/411.pdf>

(2) 비정기 간행물. 작성자나 작성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제목을 저자명으로 간주하여 해당 참고 문헌 목록 란에 제시한다.

[예 1] GVU's 8th WWW user survey. (*n. d.*). Retrieved from
<http://www.cc.gatech.edu/gvu/user-surveys-1997-10>

(3) 연구보고서 및 세미나/심포지엄 자료. 기관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보고서처럼 문서 제공자(호스트 기관)와 문서 작성자가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 기관명을 먼저 기입하고 웹 사이트 주소를 표기한다([예 1]). 만일 문서 작성자를 먼저 쓸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문서가 게재(upload)된 연도와 논문 제목을 기입한 후 괄호 안에 연구보고서 이름을 표기한다([예 2]).

[예 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연구.
URL: <https://www.kisa.or.kr/public/library/reportList.jsp>

[예 2] 윤주희 · 정찬모 · 신나리 · 모이누딘아흐메드 (2014).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개선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보고서, KISA-WP-2013-0019).
URL: <http://www.kisa.or.kr/public/library/reportList.jsp>

(4) 기타 전자 매체 자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쓴다([예 1]). 온라인상에서 읽은 일간지 기사는 기사 작성자를 쓰고, 괄호 안에 기사 작성일을 년, 월, 일로 표기한다([예 2]).

[예 1] 통계청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URL: http://kosis.kr/news/news.jsp?q_

[예 2] 강희경 (2014, 3, 25). 화면 켜고 잠금 해제를 한번에 ...노크코드 대체 예감. <한국일보>. URL: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40>

(5) 영상물. 출처는 제목 옆에 대괄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예, [CD-ROM], [Computer Software], [영화], [TV 드라마] [비디오]). 영화는 제작사 소재 도시와 제작사 명을, TV 프로그램은 방영 지역과 방송사명을, 비디오테이프는 출시 회사 주소지를 적는다. 이들 매체의 인용은 감독 (또는 제작자)의 이름으로 표기한다.

[예 1] 정류정 (감독) 성낙성 (제작) (2014). <점프를 하다> [영화]. 서울: 눈 엔터테인먼트.

[예 2] 은성원 (감독) (2014). <공룡의 눈물> [TV 드라마]. 서울: MBS TV.

[예 3] Miller R. (Producer). (1989). *The mind* [TV series]. New York, NY: WNET.

4) 법률 자료의 표기

(1) 판례(Court Decisions). '사건 이름 vs. 이름, 공개된 사건이 제시된 책의 권과 페이지, (법정, 판례 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1], [예 2], [예 3]). 판례를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판례명(연도)' 혹은 '판례명, 연도'식으로 표기하며, 판례명은 이탤릭체로 한다([예 4], [예 5], [예 6]).

[예 1] 대법원 선고 98도679 판결(2000. 10. 27).

[예 2] *Lessard v. Schmidt*, 349 F. Supp. 1078(E.D. Wis. 1972).

[예 3] *Durflinger v. Artiles*, 563 F. Supp. 322(D. Kan. 1981), *aff'd*, 727 F.2d 888(10th Cir. 1984).

[예 4] (대법원, 2000. 10. 27.)

[예 5] *Lessard v. Schmidt*(1972) 또는 (*Lessard v. Schmidt*, 1972)

[예 6] *Durflinger v. Artiles*(1981/1984) 또는 (*Durflinger v. Artiles*, 1981/1984)

(2) 법령(Statutes). '법률명, 권 출처 § 절 번호(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1], [예 2]). 법령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법률명(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3], [예 4]).

[예 1] Mental Health Systems Act, 42 U.S.C. § 9401 (1988).

[예 2] FTC Credit Practices Rule, 16 C.F.R. § 444 (1991).

[예 3] Mental Health Systems Act (1988)

[예 4] FTC Credit Practices Rule (1991)

(3) 입법자료(증언과 청문회, 법안과 결의안, 보고서와 문서 등). 증언과 청문회의 경우,

‘제목, xxx Cong. (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1]). 법안과 결의안의 경우는 ‘xx. Res. xx, xxx Cong., 출처 페이지 (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2]). 보고서와 문서의 경우, ‘xx. Rep. No. xx-xxx (연도)’로 표기한다([예 3]).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제목 (연도) 또는 ‘(제목, 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4], [예 5], [예 6]).

[예 1] RU486: The import ban and its effect on medical research, 101st Cong., 2d Sess. 35 (1990) (testimony of Ronald Chesebrough).

[예 2] S. 5936, 102d Cong., 2d Sess. § 4(1992).

[예 3] S. Rep. No. 102-114, at 7 (1991).

[예 4] RU486: The Import Ban (1990) 또는 (RU486: The Import Ban, 1990)

[예 5] Senate Resolution 107 (1993) 또는 (S. Res. 107)

[예 6] Senate Report No. 102-114 (1991) 또는 (S. Rep. No. 102-114, 1991)

4. 숫자와 통계치의 표기

1) 일반적 규정

(1) 모집단과 관련된 수치(parameters)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리스 문자는 기울여 쓰지 않는다([예 1]). 그러나 표본과 관련된 통계치(statistics)를 위해 사용하는 기호들은 모두 기울여 쓰기를 한다([예 2]). 전체 표본 수를 가리킬 때에는 이탤릭체로 N 을 쓰고, 전체 표본 중 하위 집단의 표본 수를 지칭할 때에는 이탤릭체로 n 을 쓴다([예 3]).

[예 1] σ , μ 여자, α , β , χ^2 , η^2

[예 2] N , M_X , df , SSE , MSE , t , F

[예 3] $N = 135$, $n = 30$

(2) 수치가 1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는 통계치에 대해서는 소수점 앞에 영(0)을 덧붙인다 (예, 0.23 cm; 0.48 s; $M = 0.89$; $SD = 0.29$; $B = 0.25$). 그러나 수치가 1 이하 또는 -1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을 경우(예, 상관계수, 확률, R^2 , 표준 회귀계수), 소수점 앞에 영(0)을 붙이지 않는다($r = -.43$; $p = .028$; $R^2 = .43$; $\beta = .34$).

(3) 통계 추정치(예, 표본평균, 회귀계수 등)를 보고할 때는 추정치의 변동성과 관련된 수치들 (예, 표본편차, 표집오차 등)을 보고한다(예, $M = 3.87$, $SD = 0.92$; $B = 6.25$, $SE = 0.98$).

(4) 추론통계 검증 시(예, t 검증, F 검증, χ^2 검증 등), 자유도와 정확한 p 수치를 함께 보고한다. 이때, 정확한 p 수치는 소수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까지 보고한다. 단, .001보다 낮은 p 수치는 $p < .001$ 로 표시한다. $p < .05$ 나 $p < .01$ 은 표나 그림에만 한정하여

사용한다. p 수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통계치는 소수점 아래 두 자리 수까지만 반올림하여 표기한다.

[예 1] $t(30) = .45, p = .031$.

[예 2] $t(393) = 1.34, p = .180$.

[예 3] $F(1, 394) = 6.82, \text{부분 } \eta^2 = .04, p = .009$.

[예 4] $\chi^2(8) = 8.92, p = .350$.

[예 5] (표 밑의 확률주 표기) $*p < .05$. $**p < .01$. $***p < .001$.

- (5) 추론적 통계 검증 시, 효과 크기(effect size) (예, Cohen's d , 표준회귀계수, η^2 , ε^2 , ω^2 등)도 함께 보고하기를 권고한다.
- (6) 통계 기호와 수학적 기호들은 피어쓰기를 한다(예, $a + b = c$). $a+b=c$ 식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5. 표와 그림의 표기

- (1) 표와 그림은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제목을 붙인다. 표 제목은 해당 표 위에 위치시키는 반면, 그림 제목은 해당 그림 아래에 위치시킨다.

[예 1] 표 1. 국내 컴퓨터 보급현황

[예 2] 그림 1. 뉴스의 기호체계

- (2) 관련된 표와 그림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는 화살괄호(〈 〉) 안에 표기한다(예, 〈표 1〉 참조).
- (3) 책 또는 논문에서 표나 그림을 인용했을 경우, 출처를 아래의 예시에 따라 표기한다 ([예 1]: 국내 저서 인용; [예 2]: 외국 저서 인용; [예 3]: 국내 논문 인용; [예 4]: 외국 논문 인용). 책과 논문의 표기는 참고 문헌 목록에서의 표기와 동일하게 한다. 인용된 쪽수를 표기하고 사용허락과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시한다.
- [예 1] 출처: 통계청 (1990). 〈국내 컴퓨터 보급현황〉. 서울: 통계청, 23쪽에서 인용. 원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 [예 2] 출처: Author, A. A. (1982). *Title of book*. New York, NY: Publisher, 103쪽에서 인용. 원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 [예 3] 출처: 김춘석 · 양승찬 · 이강형 · 황용석 (2005).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동향과 쟁점 및 미래의 연구방향: 한국의 연구논문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션이론), 1권, 136쪽에서 인용.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예 4] 출처: Author, A. A. (1982). Title of article. *Title of Journal*, 50, 22쪽에서 인용.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 (4)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일반주(주:), 개별주(a, b, c), 확률주(* $p < .05$. ** $p < .01$. *** $p < .001$.), 출처 순으로 배열한다. 각 유형의 주는 들여쓰기 없이 표 아래 새로운 줄에서 시작한다.
- (5) 표의 본문에 정보를 제시할 경우, 측정 값의 소수점 표기 기준과 단위 등을 통일시켜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소수점 이하 표기는 두 자리를 넘지 않도록 한다.
- (6) 표의 세로 선은 사용하지 않고 가로 선만을 사용한다.
- (7) 분산분석 결과를 표로 제시할 경우, *MSE*를 제외한 *SS*와 *MS*는 생략하되, 효과크기와 유의확률을 반드시 제시한다(〈표 1〉 참조). 유의확률(p 수치)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의 내용이 많을 시에는 F 수치에 별표(*, **, ***)를 사용하고 표 밑에 확률주를 추가한다.

표 1. 자아통제와 스트레스 프로그램 처치에 따른 게임중독 변량분석

변산원	<i>df</i>	<i>F</i>	η^2	<i>p</i>
자아통제(A)	2	3.80	.35	.007
스트레스(B) ^a	1	1.54	.09	.113
A × B	2	2.23	.15	.027
집단 내 오차(S/AB)	30	(10.05)		

주. 괄호안의 수치는 오차제곱평균(*MSE*)을 나타냄.

a. 중간 수준의 스트레스 집단을 제외한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의 스트레스 집단 비교.

- (8) 회귀분석 표에서는 B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표준화 회귀계수), t 수치, 유의도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사례 수는 주에 나타내고, 회귀분석 방법(표준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이 표의 제목에 들어가게 한다.
- (9) 모수치 추정치를 포함한 표의 경우, 가능하다면 신뢰 구간도 함께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신뢰 구간은 대괄호([])를 사용하거나, 각 열에서 하한계(lower limit)와 상한계(upper limit)를 제시하여 보고한다(〈표 2〉 참조).

표 2. 자아 통제력 및 생활 만족도가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i>B</i>	β	<i>SE</i>	<i>t</i>	<i>p</i>	95% CI	
						<i>LL</i>	<i>UL</i>
상수	26.14	.62		60.88	< .001	20.85	30.17
성별	-2.93	-.09	0.36	-10.42	.009	-3.21	-2.53
자아 통제력	-5.74	-.17	0.05	-25.74	.001	-5.97	-5.35
생활 만족도	-2.11	-.07	0.07	-9.70*	.035	-2.22	-1.80
$F(3,239) = 74.14, p = .001$							
$R^2 = .36, \text{수정 } R^2 = .32$							

주. $N = 243$. *SE* = 표준오차; CI = 신뢰구간; *LL* = 하한계; *UL* = 상한계.

출처: 홍길동·임격정 (2005). 자아 통제력이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터넷커뮤니케이션연구>, 1권 1호, 136 쪽에서 인용. 원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 (10) 회귀분석 또는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결과를 보고할 경우, 중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별도의 표로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표 3〉 참조).

표 3. 자아 통제력, 생활 만족도, 게임 중독, 학업성취도의 평균, 표준 편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자아통제력	-			
생활 만족도	.14*	-		
게임 중독	-.34***	-.25**	-	
학업성취도	.20**	.40***	-.43***	-
<i>M</i>	3.42	2.87	2.84	3.11
<i>SD</i>	1.02	1.11	1.21	0.84

주. $N = 243$.

* $p < .05$. ** $p < .01$. *** $p < .001$.

한국언론정보학회 논문 심사 규정

2010.11.29. 개정

2012.02.21. 개정

2013.11.22.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언론정보학보>(영문명: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이하 “학보”)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 구성)

- ① 개별논문의 심사위원단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 ② 논문을 투고한 자는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회 외부의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제외 논문) 다음에 해당하는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존의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
2. 영리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연구된 논문
3.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4. 논문 작성 규정을 크게 위반한 논문

제4조 (심사 평가항목) 논문은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1. 연구 목적의 명료성
2. 분석의 엄밀성
3. 연구 방법 및 논의 구성의 타당성
4. 관련문헌의 취급
5. 연구 결과의 의의
6. 논문의 독창성
7. 논문 분량의 적절성
8. 논문 작성 규정의 준수 정도
9. 논문 초록의 완성도

제5조 (심사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 ① 심사위원은 별도로 마련된 평가서에 의거하여 심사 결과를 다음 다섯가지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1. 무수정 게재
 2. 부분 수정 후 게재
 3. 대폭 수정 후 다음 호에 재심사
 4. 게재 불가
-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논문을 투고한 자에게 통지한다.
- ③ 재심사를 받을 경우 심사위원은 초심을 맡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담당 편집위원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15일 내에 해당 논문 투고자와 해당 심사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제6조 (게재 여부 결정) 게재 여부의 결정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 ①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에서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 의견 및 소수 의견 간의 평가 결과에서 심각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논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편집위원의 다수 의견을 따르고 편집위원의 가부 의견이 동수일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부분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수정 요구 사항의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 ④ 다음 호에 재심사로 결정된 논문이 재심사 후에도 다시 다음호 재심사로 판정되면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⑤ 논문을 투고한 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게 이의 사유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이의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논문을 평가할 수 있다.
- ⑥ 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이 많아 모두 게재하기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순서를 조정해 일부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이때에는 투고일자 순으로 처리한다.
- ⑦ 투고 논문의 분량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분량의 적절성이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한다.

제7조 (공동저작의 저자 순서) 2인 이상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투고한 논문의 저자 순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정한다.

- ① 저자 순서는 논문에 대한 기여도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 연구자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
- ② 공동 연구자가 저자 순서를 명기하지 않을 경우 연구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제8조 (논문 처리 일정의 명기) 게재된 논문은 논문 말미에 투고일자, 수정일자, 게재확정 일자를 명기한다.

제9조 (특집호 발간)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으며, 원고 모집은 편집위원회의 기획을 거쳐 공모나 청탁 형식으로 할 수 있다. 특집호의 원고도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제10조 (기획논문)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기획을 거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논문으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게재토록 한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윤리 규정

2008.06.08. 제정

2010.11.29. 개정

2012.05.11. 개정

2013.11.22. 개정

2019.08.2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원이 교육과 연구, 사회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학문적 양심과 윤리를 지켜 학회의 위상을 격하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일반윤리

제2조 (기본적 책무)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교육, 연구, 사회참여에 있어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따라야 한다.
- ② 본 학회의 회원은 교육, 연구, 사회참여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에 봉사하여야 한다.

제3조 (학문의 자유와 윤리)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성, 연령, 사상, 종교,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을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 ② 본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학문적 관점, 접근 방식, 연구 업적을 존중하여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 ③ 본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여서는 않도록 한다.
- ④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 심사, 자문 등 학술 활동 및 기타 공적 임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제4조 (표절 행위)

- ① 출판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문구, 그림을 저자의 동의나 출처의 고지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 혹은 주장인 것처럼 논문과 저술에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중복 투고, 및 이중 출판 및 심사 논문 발표)

- ① 동일한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심사받아서는 안 된다.
- 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논문에 근거한 경우 저자가 각주를 통해 이를 밝혀야 한다.
- ③ 이미 한국언론정보학보에서 출판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여타 저널에서 이미 출판한 논문의 자료를 한국언론정보학보에 투고한 논문에서 사용한 경우, 자료의 출처를 논문에서 밝혀야 한다. 본보 한국언론정보학보의 편집자에게 이미 여타 저널에 발표된 논문과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이미 발표된 연구보고서나 저술의 일부를 한국언론정보학보에 출판하고자 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본보 한국언론정보학보의 편집자에게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⑥ 심사 중인 논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제6조 (저자로서의 연구 업적)

- ① 자신이 실제로 아이디어의 시작, 연구 설계 및 실행 등 논문 작성을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한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제1저자는 논문작성의 전 구성요소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며,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 ③ 공저자는 제1저자보다 연구수행에 덜 관련된 사람을 의미하되 연구에 분명하게 기여하여야 한다. 저자의 순서는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상대적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는 각 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감사를 표하도록 한다.
- ④ 동등하게 공헌한 경우, 가나다 순 혹은 저자들이 상호 합의한 방식으로 순서를 결정한다.
- ⑤ 타인이 논문에 공헌 없이 연구업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학문적 양심에 비추어 이를

동의, 묵인, 방조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연구 참여자 보호)

-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원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기간, 절차, 보상과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서면이나 구술기록으로 보관한다.
- ②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 ③ 연구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음성 및 영상을 기록할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실험연구의 경우 실험의 의도에 대해 실험 직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성적 불쾌감을 주거나 인권 침해, 또는 불법으로 여겨질 수 있는 질문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수집과 처리과정의 정직성)

- ① 자료의 수집과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연구에 반영되어야 한다.
- ② 연구가설이나 후원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료를 은폐,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연구결과의 기술)

- ① 연구의 목적, 절차, 결과에 대하여 연구가 수행된 대로 엄밀히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타당도나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절차에 관한 정보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
- ③ 조사연구, 실험, 초점집단인터뷰 참가자의 선택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④ 실증조사연구의 경우 연구방법론(샘플의 크기, 응답률, 설문항목, 코더 간 신뢰도, 가중치 부여도 및 자료 입력 등)에 대하여 정확하고 완벽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자신의 연구의제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결과를 누락하거나 과장하는 편향된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이해상충)

- ① 외부 후원자나 후원기관의 이해관계에 부응하기 위해 의도된 연구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외부 후원자나 후원기관을 만족시키기 위해 연구결과를 편향되게 보고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편집윤리)

-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논문 심사 의뢰 시 투고자와 심사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2조 (논문심사윤리)

- ①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논문심사의 전 과정에서 비밀과 정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② 논문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한다.

제4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3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

- ① 윤리위원회는 회원 9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과 총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제정, 개정 및 수정을 주관하며 회장은 윤리규정에 대한 회원들의 이의신청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③ 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저술, 교육, 사회참여 등과 관련한 영역에서 발생한 비윤리적, 부도덕한 행위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 ④ 윤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에 대한 징계 사안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윤리규정의 준수)

- ① 한국언론정보학회의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윤리규정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서면으로 학회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현행 윤리규정을 준수토록 한다.

제15조 (윤리규정 위반)

- ①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윤리규정 위반 사실 여부, 조사, 심의, 그리고 필요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 이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윤리규정 위반사실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학회의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회원의 신원과 위반사항은 비밀에 붙인다.
- ④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 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⑥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이 내려질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와 관련한 모든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2008.6.8., 2010.11.29., 2012.5.11., 2013.11.22., 2019.8.27.)

1.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201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201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201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언론정보학회의 관례에 따른다.